

국일제지,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 인정 ... 국일제지는 경영권 행사

2005년 8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호제지 임시주주총회가 신호·국일제지간의 합의에 따라 20분 만에 국일제지의 승리로 끝났다.

신호제지 김종곤 대표이사 등 이사 2명 해임안, 이사 1명 선임안 등의 안건으로 3월20일 경기도 오산시 신호제지 본사에서 열린 신호제지 주총은 10시에 시작해 20여분 만인 10시 21분에 끝났다.

기업의 실적악화를 우려한 국일제지 최우식 사장과 신호제지 김종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기업을 경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건 중 김종곤 대표이사 등 이사 2명 해임안은 부결됐으며 국일제지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새로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총 8명의 신호제지 이사 가운데 5명의 자사측 인사를 확보해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성공했다.

신호제지의 적대세력으로 56.02%의 지분을 소유한 국일제지는 3월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 해임안을 부결시켰고, 국일제지는 김종곤 대표이사를 인정하는 대신 신호제지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통해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호제지 경영진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김종곤 대표이사는 2월24일 최우식 사장을 이사로 승인했으며 최우식 사장은 3월 초부터 신호제지로 출근하면서 기업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식 사장은 애초 2005년 말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지만 대표이사의 청약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종곤 대표이사가 최우식 사장을 이사로 승인함에 따라 최우식 사장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3월17일 취하됐다.

양측은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국일제지는 임시주총에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신호제지 이사는 최우식 사장을 포함해 7명으로 4명이 국일제지측 인사인데 국일제지는 새로 선임된 이사까지 총 8명 중 5명의 자사측 이사를 통해 신호제지를 경영할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임시주총은 조용하게 끝날 전망이다. 최우식 사장은 주총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2005년 말 양측이 각각 선임한 이사들은 최우식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임하고 신호제지 이사회는 8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제지업계 2위인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2005년 8월 경영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69%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국일제지가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이 별도의 주총을 열고 선임한 이사 6명을 국일제지보다 먼저 수원지법에 등기하면서 신호제지 경영권 문제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21>